



경제공간의 형성·구조등 밝히는 經濟地理學의 첫 본격 著書

— 東國大 邢基柱 교수

지금 집필중

『地理學을 ‘고목에
돌아난 새 가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사실 지리사상의 역사는
geography란 말을 처음

쓴 고대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와
『漢書』地理志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학문으로 출범한지는 150여 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해방 후에야 대학에 지리학과가
설립된 우리의 경우, 그 역사는 더 짧은
邢基柱 교수(54·동국대 지리교육과)의
말이다.

그러나 지리학의 학문적 축적의 日淺함을
덤덤히 지나치기엔 治山治水와 지리적 실천의
중요성이 너무나 큼을 우리는 이번 여름
절감했다. ‘땅은 다스림의 근본’이라는 옛
사상이 管子의 격언인 ‘할(喝)’의 꾸짖음으로
다가오는 요즘, 邢基柱 교수는 경제지리학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저작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토대를
경제공간 또는 경제지역이라 부르죠.
경제지리학은 이 경제공간이 국가 차원이나
또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형성돼 왔으며,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를 해명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쟁기라는 농기구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발달돼 왔는가로부터 현대 농업의
각국별 특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활동의
역사를 지리적 토대와의 관련 속에서
추적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지리학은
경제인류학, 경제사학, 농학, 공학 등
인접학문과 인식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응용면에서도 도시계획학, 생태학, 지질학
등과 긴밀한 學際間 교류·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경제공간」에 대한 논의는 立地論과
지역론, 景觀論 등 세 차원에서 접근되는데
정책결정에 직결되는 분야는 입지론으로,
과거에는 실증주의적 이론이 주류를 이뤄
왔다.

『경제지리학이라 하면 흔히 英美계통의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연상하기 쉬운데,
저는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깔면서도 유럽쪽의
다양한 이론도 소개·가미할 작정이예요』

邢基柱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신고전과 경제학에
기초한 영미쪽의 실증주의 이론은
positivism이 ‘공정한다’는 뜻을 내포한
것처럼 현실 전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정책 학문’의 성격을 띤 것이라 한다. 이에
반해 유럽학계에는 인간의 내면적 경험과정에
주목하는 해석학적·현상학적 접근과 가치의
실천을 중시하는 급진론 등 다양한 이론이
이른바 주류학문에 대한 안티테제로 제기돼
왔다는 것. 1880년 독일에서 태동한
경제지리학이 그후 미국으로 건너가
실증주의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효율성의
원리’라는 신고전파의 편협한 시각을
탈피하려는 갖가지 이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덧붙여 邢基柱 교수는
우리의 지리학이 동양의 옛 지리사상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역설한다.
그는 최근 지리학회誌에 ‘國學으로서의
지리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집필을 구상한지는 5년 가까이 됐지만
‘시험 저술’인 탓에 진도가 느리군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드시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원고지 1천3백장 가량을 탈고했는데,
앞으로 6~7백장 더 쓸 계획이다.



파스퇴르연구소가 펴낸 AIDS 예방 위한 해설서

— (주) 汎洋社 출판부

지금 제작중

구기동 계곡 한적한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주)汎洋社 출판부는
지금 AIDS에 관한
해설서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이 책은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가
85년말 펴낸 것으로, 동 연구소(파리)
분자생물학부 연구원으로 있는
李璟日(34)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장
밥티스트 브뤼네, 장 클로드 글뤼크망,
다비드 클라츠망, 빌리 로젠망 등 여러
전문가가 공동집필하고 뤽몽타니에교수가
監修했다.

『매스컴에 보도되었다시피 AIDS에 관해
아직 치료법도, 예방백신도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병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길
뿐이죠』

원저자가 서문에서 피력했듯이, 이 책이
일반인들에게 AIDS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는 출판부장 李萬根씨(41)의
말이다.

AIDS의 원명칭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우리말로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이라 번역된다.

82년에 파스퇴르연구소가 처음 발견한 이
바이러스는 매우 복잡하고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즉 레트로 바이러스이고 자주
돌연변이를 일으켜 항체의 공격을 피하며
인체의 가장 치명적인 면역계통을
공격함으로써 인체를 무력화, 각종 합병증에
대한 기회감염을 유발한다. 또 인간의 은밀한
행위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강제로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AIDS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알려졌고

시중에 책도 나왔지만, 아직도 부정확한
지식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하는 李부장은 그 선입관을
두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이 병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감염된다는 무관심,
둘째 일상 단계생활에서도 감염된다는 과장된
두려움이 그것이다. 치사율이 높고
세계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이 병의 예방에
무관심해진 결과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장된
공포와 무지로 인해 또다른 愚를 범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기우일지 모르겠으나
만약 옛날 ‘문둥병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했듯이 AIDS 보균자를 취급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획의도는 흥미거리
제공과 전혀 거리가 멍니다』

센세이셔널리즘과는 무관함을 못박는
李부장의 말처럼, 汎洋社 출판부는 나름의
개성을 견지해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체
부설로 운영한다는 것도 특이롭지만
발족시부터 외국 저자에게도 꼬박꼬박
로열티를 지불하는 원칙을 지켜온 점, 8년간
발간한 40여종의 도서가 대부분 상업성과는
거리가 먼 과학 교양도서라는 점 등이 그렇다.

『그건 李成範 회장(70)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李회장은 35년 徐廷柱, 吳章煥
등과 함께 『詩人部落』同人으로 활동했던
문인입니다』

늘그막 ‘文郷에 돌아온’ 李회장의 의욕으로
동인지 『回歸』와 함께 「춤추는 物理」(주커브
저) 「발견자들 I·II」(다니엘 부어스틴 저)
「新과학운동」(신과학연구회 편) 등의
과학서가 꾸준히 발간됐고, 이 책 역시 늦어도
9월까지는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